

건설 60년 건설의 날 기념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권홍사 회장님을 비롯한 건설인 여러분,
건설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분들께도
거듭 축하 말씀 드립니다.

여러 산업 분야 모임에서 훈장을 드렸는데 그 어느 때보다 오늘 건설인에 대한
훈·포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인 여러분이 국가에 기여한 것이 정부 전체로
부터 크게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건설산업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노릇을 해 왔습니다. 특히 1970
년대 중동에서 흘렸던 땀방울은 오일쇼크를 이겨 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건설산업은 GDP의 15.4%, 전체 고용의 7.9%를 차지하는 국가 중추산
업입니다. 해외건설 수주액도 빠르게 증가해서 지난해 165억 달러를 넘어섰고,
조금 전 권홍사 회장님 인사 말씀에서 올해 200억 달러로 간다고 밝히셨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 건설인의 활약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
곳에서 우리 경제의 발전은 물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

니다. '버즈 두바이'에서, '라스라판 산업도시'에서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온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인 여러분,

참여정부 들어서 건설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지표도 일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택경기에 의존한 일시적인 단기 부양책은 집값의 급등을 가져와서 원가 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거품이 꺼질 경우 심각한 경제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기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날 무리한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뒤끝이 좋지 않았던 여러 사례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건설경기 활성화는 부동산 안정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설산업이 보다 길게 안정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멀리 보면 참여정부만큼 건설 물량을 많이 준비한 정부도 없을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은 국가균형발전사업이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축용 임대주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주택정책을 통해서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함으로써 주택 경기도 건강하게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균형발전 영역에서 기반시설에만 약 56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유발되는 투자까지 합하면 101조 원을 넘을 것입니다. 건설경기와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인건비나 자재 파동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차근차

근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물량뿐만이 아닙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들은 건축, 환경, 문화, 정보통신, 교통 등 여러 면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모아서 도시 건설의 모범을 보여 주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건설 기술을 확인하고, 한국 건설 기업의 우수성을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이제 건축도 자연과 문화, 역사와 조화를 이루고 예술적 아름다움을 갖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밀집된 획일화된 도시가 아니라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가 경쟁력이 높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건설기술과 건축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건축문화·건설기술선진화위원회를 만들고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이 2002년에 비해 7배 이상 늘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 서비스 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별건축 구역의 도입, 공공발주제도의 개선 등 법과 제도도 창의력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행정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연대를 구성해서 혁신 과제들을 현장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독립된 연구소는 아니지만 이 분야를 연구 개발해 나갈 정부 연구소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도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건축과 도시 건설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도시는 물론이고, 기존의 도시들도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건설인 여러분,

지금은 혁신으로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기술과 경영 혁신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외시장에서도 시공 수준을 넘어 사업을 기획하고 투자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온 여러분의 역량이라면 반드시 더 큰 성공의 역사를 이뤄 갈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건설의 날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